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7. 27.(수)
담당 부서	노동정책실 노사관계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7620)
		담당자	사무관 윤삼수 (044-202-7630)

**보도내용은 노사관계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으며,
국내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7.27.(수) 한국경제, 「10년간 2배 늘어난 파업에...GDP 年 10조 줄고 일자리 17만개 증발」 기사 관련

- ‘노동조합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까지 10년간 노조조직률은 27.9% 증가하고 파업 발생 건수는 113.5% 늘어 전체적으로 노조 협상력이 71% 강화됐다.

2. 설명 내용

□ 보도내용은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22.7월 발간한 「노동조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 ‘10~‘19년간 쟁의발생건수 추이(p11)를 인용한 것임

- (재)파이터치연구원에서 제시한 분규건수는 사실과 다르지는 않으나, 보도 내용의 파업 발생 증가율 113.5%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전체 노사관계 현황·추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실제로는 집계기간(‘10년~‘19년) 중 노사분규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해도 있어, 단순히 특정 시점(‘10년, ‘19년)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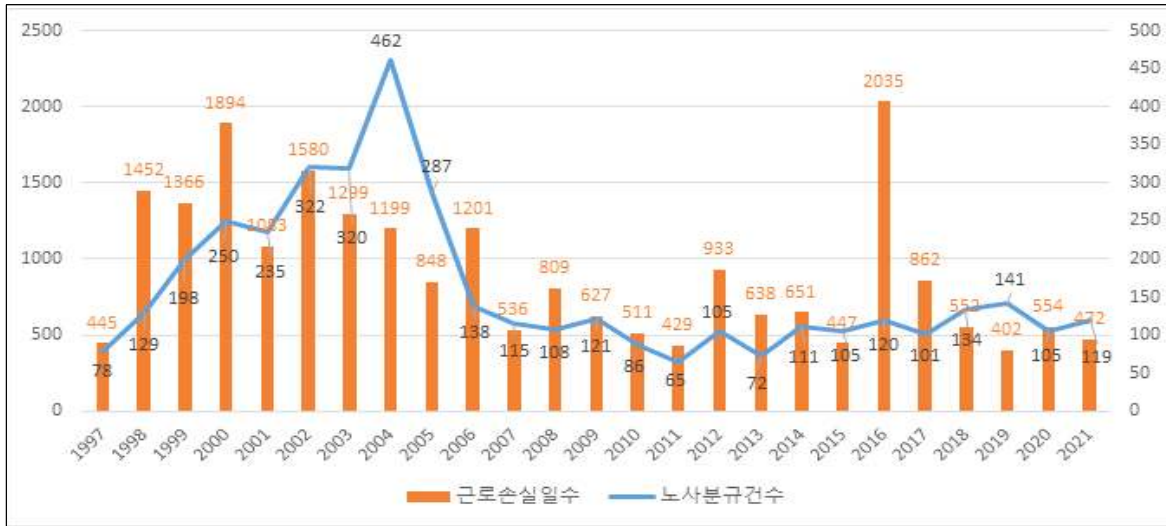
□ 실제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97년 이후 노사관계 지표를 살펴보면,

- 노사분규의 경우, ‘04년 462건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해 ‘06년 100건대로 진입했으며, 그 이후 연평균 109건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근로손실일수의 경우, '00년 1,894천일을 정점으로 그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472천일을 기록하는 등 '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하 「'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참조

3. '97년 이후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추이



○ '97년~'09년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노사분규건수(건)	78	129	198	250	235	322	320	462	287	138	115	108	121
근로손실일수(천일)	445	1,452	1,366	1,894	1,083	1,580	1,299	1,199	848	1,201	536	809	627

○ '10년~'21년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6	'21.6
노사분규건수(건)	86	65	105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42	42
근로손실일수(천일)	511	429	933	638	651	447	2,035	862	552	402	554	472	132	151